

시민 이롭게 하는 새로운 광산 만든다

박병규 구청장, 상생·혁신 규정 기틀 일자리·문화관광 등 5대 분야 제시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2023년 새해를 맞아 "민선 8기 상생과 혁신의 설계를 구제적으로 시행해 시민을 이롭게 하는 광산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지난 2022년을 '새로운 변화를 싹 틔운 해'였다고 평가한 뒤 "시민의 소리를 듣고, 공직자, 전문가들과 광산의 새로운 길을 찾으며 구체적인 정책들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민선 8기 1호 결재 '찾아가는 경영 구청장실'의 성공적 안착, 재택돌봄 휴블런스센터 운영, 고려인 첫 정착지인 카자흐스탄 카리탈 군과의 우호교류 협약 등은 민선 8기 상생, 혁신 규정의 기틀을 다진 대표 성과로 꼽혔다.

광산구는 이 같은 정책 덕분에 지난해 '대한민국 주거복지 대전' 대통령상, 자치구 지방자치경쟁력 지수 전국 2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 우수 지자체 대상, 재난관리평가 국무총리 표창 등 중앙부처와 광주시 등이 주관한 대외 기관 평가에서 무려 60개 부문 수상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는 역대 최대 광주시 특별조정교부금 108억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4억원 확보 등으로 이어졌고,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동력이 되고 있다.

박병규 구청장은 "2023년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민선 8기만의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해가 될 것"이라며 새해 포부도 밝혔다.

대대적 조직개편이 그 첫 신호탄이다.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명품 30리길, 외국인과 함께 여는 글로벌 광산, 광산형 돌봄체계, 안전한 일터 등 민선 8기 중점 과제를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부서 신설 등 조직 정비에 마무리했다.

광산구는 이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시민 삶에 더 깊이 스며드는 구정을 구현한다는 목표다.

박병규 구청장은 '새로운 광산'을 실현하기 위한 5대 분야로 ▲좋은 일자리, 풍요로운 도농상생 1번지 광산 ▲일상과 일터를 아우른 안심도시 광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지난 2일 새벽 광산구생활환경종합센터를 방문해 환경직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떡국을 나누며 활기찬 새해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

산 ▲통합 돌봄체계 확립 및 성평등 광산 실현 ▲탄소중립과 문화관광 활성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등을 제시했다.

'좋은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조성 사업을 비롯한 노후산단 환경정비, 노사상생 컨설팅, 중소기업 노동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한다. '푸드플랜 아카데미', 공공급식 기획 생산체계 구축, 생태치유농장 조성 등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먹거리 상생도시 기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안전 분야에선 통학로 야간조명 개선,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케어 지원, 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등을 시행하는 한편, 신설한 중대재해예방팀을 중심으로 빈틈없는 안전 체계를 수립한다.

보건소를 하남3지구로 신축해 이전하고, 기존 자리에는 송정 보건지소를 설치해 공공의료의 권역별 균형을 맞추고,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체계도 재정비에 각종 감염병 출현에도 대비한다.

재택돌봄 휴블런스 적용 지역 확대 등 의료, 주거,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광산형 돌봄체계'도 확립한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마을복지관 확충, '광

산복지재단' 설립 등 복지 체계 고도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 확대발굴, 찾아가는 주민 성평등 교육 확대 등 시민이 체감하는 성평등 정책도 이어간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행동 프로젝트, 기후행동 활동가 양성, 자원순환 인센티브 강화 등을 추진한다.

문화·관광 활성화에도 본격 시동을 건다.

송산근린공원에서 등국 두물머리 구간을 '명품 30리길'로 조성해 광산의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하며 걸을 수 있는 '힐링 명소'를 제공하고, 월봉서원과 무양서원 일대는 전국 최고의 문화 관광 명소로, 고려인마을 일대는 '중앙아시아 역사테마 관광지'로 특화해 육성한다.

또 주민자치회 역량과 마을활동가 전문성 강화, '찾아가는 경영 구청장실' 지속 추진 등 시민 소통에 기반한 '혁신 행정' 구현도 핵심 목표다.

박병규 구청장은 "올해는 시민을 이롭게 하는 광산의 새로운 변화를 지향점으로 삼아 상생과 혁신으로 따뜻하고 풍요로운 광산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지구 JC특우회 박성호 회장 쌀 100포 기부

광주지구 JC 특우회 박성호 지구회장이 최근 쌀 10kg 100포(300만원 상당)를 투계터광산 나눔문화재단에 기부했다.

기부 물품은 2023년 지구회장에 취임한 박회장의 취임식 행사에서 축하 화환 대신 기증 받은 쌀과 회원들이 모은 쌀 등으로 마련했다.

광주지구 JC 특우회는 매년 지구회장 취임식을 활용해 지역 소외계층을 돕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는 전남진역대 회장을 비롯한 장양표 부회장, 불명곡 사무처장 등이 함께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학교급식센터 '공공급식센터'로 개편

아동시설·공공기관 대상 확대...안전한 지역 먹거리 공급

광주 광산구는 "올해부터 지역 우수 식재료 공급 확대와 급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공공급식지원센터로 개편·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 등 다양한 먹거리 의제를 포괄한 선순환 종합 먹거리 전라권 '광산 푸드플랜'의 일환이다.

광산구는 지역 학교 급식을 위주로 식재료 공급을 담당해 온 학교급식지원센터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도 마무리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식재료 공급대상을 기존의 학교를 비롯한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공

공기관 등으로 확대한다.

특히 우수 식재료 수발주 및 검수, 공공급식을 위한 농기조직화 및 작부체계관리, 잉여농산물 나눔 활동 등 지역의 우수 식재료 공급은 물론 지역 순환형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거점 역할도 맡게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농업을 활성화하고, 공공급식에 양질의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급식과 관련한 다양한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연말정산 서류 퇴근 후 천천히 발급하세요"

광산구,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확대 운영

광주 광산구가 동행정복지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상시 개방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진>

4일 광산구에 따르면 전체 21개동 행정복지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동행정복지센터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점심시간 및 야간, 휴일에도 언제든지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상시 개방한다.

이번 달에는 일단 14개동이 24시간 운영에 나서며, 나머지 7개 동도 환경정비, 보안 등 시설을 보강하여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무인발급기 상시 개방에 따라 다가오는 연말정산에

주로 필요한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무료 발급도 24시간 가능하게 됐다.

광산구는 또 민원편의 확대를 위해 그동안 주민등록증 발급신청부터 수령까지 2~3주간 소요되던 이송 기간을 최대 10일로 단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민선 8기 규정 방향인 '시민을 이롭게' 하는 행정 중 하나라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현재 광주시 97개동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중 개방한 동은 28개동으로 29%에 불과하며, 동구 2개



소, 서구 9개소, 북구 3개소, 남구는 1곳도 없다.

광산구 관계자는 "다양한 민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이로운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오영걸 부이사관, 광산구 부구청장 취임

광주 광산구 부구청장으로 오영걸(사진) 부이사관이 지난 2일 취임했다.

오영걸 신임 부구청장은 이날 구청 7층 운상원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집무를 시작했다.

제8회 지방고시 출신으로 2003년 공직에 입문한 오 부구청장은 광주에서 국제협력담당관, 일자리정책관, 정책기획관, 군공항교통국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광주시 투자유치서울사무소, 외교부 주베트남 대사관 총영사관 등 여러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으로 현안 대응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 파견돼 지역 현안들

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일자리정책관 시절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과정에 함께하며 광주형 일자리 정책 성공의 주춧돌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오 부구청장은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광주시와 가교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민선 8기 시책이 속도감 있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